

<https://doi.org/10.22643/JRMP.2022.8.1.1-2>

The Wind of Changes on Post-COVID

Jung Young Kim*

Division of Applied RI,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Seoul, Republic of Korea

2022년 5월 20일에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일본의 후쿠시마 의과대학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지역훈련과정인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이용 방사성의약품 생산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의 50여명이 넘는 연구자가 참석하였고,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생산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열린 토론과 기술교류가 있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아직까지 기술적·경제적으로 낙후된 것 것이 아시아지역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방사성의약품 생산기술의 자급자족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술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렇듯 웹세미나, 즉 웨비나(Webinar)는 우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연스러운 세미나 형식으로 자리잡았으나, 과학기술의 협력과 교류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했다. 결국 웨비나의 성패는 사전에 오프라인에서 얼마만큼 연구자와 연구자 사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가에 달려있다. 사실상 앞선 IAEA 웨비나를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다시 회의나 학술행사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 잠시 미뤄 두었던 국내외 과학자들의 국가 간 기술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학회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오프라인 학술행사가 전혀 없었고, 그 가운데에서 학회 회장 및 이사진

들도 대거 젊은 사람들로 세대가 교체되었다. 코로나19 없이 신구의 교차가 좀 더 인간적인 차원에서 되었으면 좋겠지만, 온라인에서 마치 게임의 캐릭터를 교체하듯 단행되어 사실상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 학술지 편집위원들도 학회의 이사진 변경에 따라 대거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신생 학회를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학술지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묵묵히 만들어 온 많은 연구자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아직도 그들의 땀방울이 우리 학술지에 흠뻑 젖어있는 듯하다.

올 봄에 전 편집위원장이신 정재민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 학술지 편집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정중히 거절 했었다. 그러다가 이내 새로운 학회 회장과 이사진의 출범과 함께 이교철 회장님의 간곡한 연락이 재차 왔다. 2002년도 테크네슘 화학을 기반으로 학회에 입문하면서 정재민 교수님은 늘 마음 속에 교과서였고 내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교철 박사는 늘 함께 한 직장동료이며 연구자였다. 그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잊은 채 살아왔다.

물론 간행이사직을 거쳐 편집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우리 학술지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키고 더 큰 세계로 이끌어야 할지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학회의 많은 연구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책임감이 막중하다. 저를 믿고 학술지를 맡겨 주신 정재민 교수님과 이교철 회장님께 감사의

Received: June 28, 2022

Corresponding Author: Jung Young Kim, Ph.D. Principal Investigator Division of Applied RI
75 Nowon-ro, Nowon-gu Seoul 01812 Korea
E-mail: jykim@kirams.re.kr Tel: +82-2-970-1624

Copyright©2022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되어 8권 1호를 출간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학회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에서 우리 학술지는 다시 한 번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술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학회 연구자들의

역량이 녹아져 인류애적 과학기술의 본질을 다 수행하리라 믿는다. 끝으로 편집위원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준 박지애 간행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스트코로나에서 우리 만나서 서로 손을 맞잡고 방사성의약품 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다.